

---

---

# 고려 우왕대 이색과 한수의 교유와 시(詩)

- 『목은시고』, 『유항시집』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

---

---

김윤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

머리말

I. 『유항시집』의 작시 연대 및 구성

II. 이색과 한수의 차운시

III. 우왕대 이색과 한수의 교유관계

1. 우왕대 이전의 관계

2. 우왕 즉위 이후 ‘버들골 이웃’의 잦은 만남

3. 버들골의 화제(話題)

4. 노년의 질병, 그리고 한수의 죽음

맺음말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907).

● 투고일: 2017. 5. 22.    ● 심사일: 2017. 5. 24.    ● 게재확정일: 2017. 6. 2.

## 요약

이 글은 『목은시고』, 『유항시집』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하여 고려 우왕대 이색과 한수의 교유관계를 파악하고, 더불어 그들의 일상을 역사적 관점으로 풀어가려 했다. 시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10대 무렵부터 한수가 세상을 떠나는 때까지 거의 40년 간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단, 각각 수록된 시를 교차 검토하게 되면, 그 시기는 1375년(우왕 1)~1384년(우왕 10)에 한정된다. 우왕대에는 그들이 대체로 정계 일선에서 벗어나 있던 만큼,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개입되지 않았다. 과거 공민왕대처럼 패기 있게 성균관 중영을 주도하고, 신돈의 개혁에 반대하던 혈기왕성함도 사라져 있었다. 노년의 몸은 매일 쭈시고 아팠으며, 나이만 들어가던 세월은 야속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를 통해 문학적 감성을 나누며 서로를 위안했다. 그들 사이의 ‘시 짓기’는 교유관계의 핵심이자 일상 그 자체였다. 상대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되기도 했고, 삶의 고민과 즐거움이 담긴 일기장이 되기도 했으며, 누각에 올라 달을 보며 짓는 감상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색이 시를 지으면 한수가 창화하기도 했다. 가끔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단순히 운자를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았고, 시적 공감대를 그들의 교유관계 속에서 확산해 갔던 것이다.

그들의 교유관계에서는 고려 말 신흥유신의 특질도 엿보인다. 신흥유신은 고려 말 성리학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과거를 통해 입사하였다. 과거를 통한 인연은 좌주, 문생, 방백, 동년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신흥유신 결집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 이색과 한수의 가문 역시 좌주, 문생, 방백 등으로 삼대가 얽혀 있었다. 거기에 혈연, 혼맥, 학연까지 얽히면서 인간관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고려사』, 족보

등의 사료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집 속 시문에서는 그러한 관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사람의 감정적인 측면이 듬뿍 담겨 있는 문학 작품이지만, 다른 사람이 차운한 시문 및 관찬 사료까지 관련시켜 분석하면 시대적인 과제와 고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당시 국가적 위기였던 왜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한수의 경우 유배 시절에 왜구 침략의 실상을 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방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왜구를 물리쳤던 전과를 올렸던 최영, 이성계를 위해 지은 시문도 주목되었다. 이색, 한수를 비롯한 당대의 유학자들이 모두 승리를 축하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고려 종묘사직의 안정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려 우왕대는 신홍유신의 결집이 정계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시기였다. 그러나 정계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신홍유신 내부의 결속이 과거, 사회, 모임 등을 통해 지속되어 갔다. 과거 공민왕대에 비해 성리학의 발전도 주춤하게 되어 가끔은 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곤 했지만, 사적 관계망에서의 유대를 통해 학문적 기대와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바로 『목은시고』, 『유항시집』의 시문이라고 여겨진다.

주제어 : 이색, 한수, 권근, 정몽주, 정추, 목은시고, 유항시집, 차운시, 신홍유신, 좌주, 문생, 방백, 동년, 왜구, 버들골

## 머리말

사람은 특정 국가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 수많은 동서양의 사상가와 역사가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한국 사학계에서도 대개 ‘교유관계’로 설명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 왔다. 대부분은 개인의 혈연, 혼인, 학문으로 연결된 인맥을 통해 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는데, 이는 우리 역사에서 가문이나 학문적 배경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가문, 혼맥, 학연 등의 객관적인 지표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관련 사료들을 총동원하여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지만, 그것이 이들 사이의 세밀한 공감과 소통의 측면까지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 말 이색(李穡; 1328년, 충숙왕 15~1396년, 태조 5)과 한수(韓脩; 1333년, 충숙왕 후2~1384년, 우왕 10)의 교유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관련 기록으로서 그들이 주고받은 시들을 주목하려 한다. 이색의 『목은시고(牧隱詩藁)』에 4,262편의 시, 한수의 『유향시집(柳巷詩集)』에는 147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sup>1)</sup> 두 시집에 담긴 편수는 큰 차이

---

1) 시의 번역본은 『목은시고』의 경우 임정기·이상연의 『국역 목은집』 1-9(민족문화추진회, 2000~2003)와 여운필·성범중·최재남의 『역주 목은시고』 1~12(월인, 2000~2007), 『유향시집』은 성범중·박경신의 『한수(韓脩)와 그의 한시(漢詩)』(2004, 국학자료원)를 참고하였는데, 간혹 좀 더 쉽게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시의 편수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작품 번호를 사용하였다. 『목은시고』는 [목1-1]이라 하여 권수와 작품번호를 적었고, 『유향시집』은 한 권이기 때문에 [유1]의 예처럼 작품번호만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목은시고』는 이익주의 작품연보에 있는 작품 번호(2013,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유향시집』은 상기한 성범중·박경신의 저서 내 번역본(Ⅱ. 자료편 : 『유향선생시집』 번역본)에 있는 번호를 활용하였다.

가 나지만, 작시 연대나 내용적으로는 상호 유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일부의 시들은 서로를 염두에 두고 지은 것으로, 그들이 공유하였던 생각과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시문의 작시 연대를 파악하여 사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교유관계의 측면을 더욱 충실히 설명할 수가 있다. 이색과 한수는 시를 통해 안부를 묻거나 같은 대상에 대한 감상을 읊기도 했고, 차운(次韻)하는 방식을 통해 감흥을 나누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이색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빌려 한수가 다시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은 차운시를 중심으로 이색과 한수의 교유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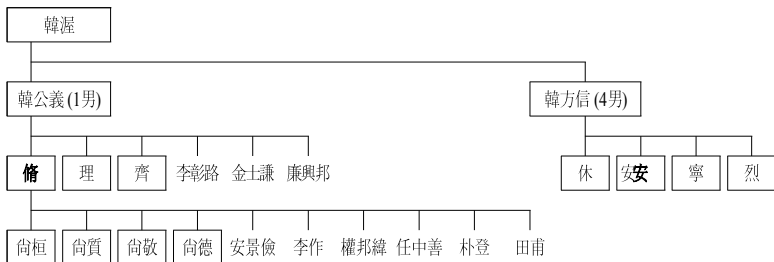
한편, 지은이의 감성이 적극적으로 담긴 시를 역사적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들의 시에는 문학적 감성을 담은 은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비유가 상당하므로, 역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을 설명하려 했던 부분도 매우 많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상사가 시체의 대상이 되는데, 감정의 기복이나 정치·사회적 화제에 대한 견해까지 다양하였다. 게다가 훗날 자손들은 시를 편년(編年)하여 문집으로 묶어냈다.<sup>2)</sup> 시에서는 간혹 저술한 연월일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주(註)를 달거나 본문에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를 지은 시기가 확인되면, 충분히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오히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정사 기록의 공백을 보완할 수도 있다.

2) 시를 지은 순서대로 문집을 편집하는 방식은 『목은시고』, 『유항시집』 뿐 아니라 이승인(李崇仁)의 『도은집(陶隱集)』, 정몽주(鄭夢周)의 『포은집(圃隱集)』, 김구용(金九容)의 『척약재집(楊若齋集)』 등 다른 문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목은시고』 외의 시문들은 편수가 적다. 각 시문의 저작 연대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사이 공백이 너무 길고, 또한 편집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대목도 많다. 한편, 『목은시고』의 경우 편수가 매우 많아서 편년하기가 용이하여 다른 문집 시문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항시집』의 경우는 이색의 시에 차운하거나 관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편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색과 한수의 시는 거의 우왕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왕대는 정치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색은 1371년(공민왕 20)에 모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7~8년 동안 와병생활을 하였고, 이후 우왕대에는 주목할 만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수도 1376년(우왕 2)에 공민왕 시해에 가담한 한안(韓安)의 가문이라는 이유로 유배당한 이력이 있다.<sup>3)</sup> 약 1년도 되지 않아 해배되었지만, 한수 역시 우왕대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가 1384년(우왕 10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주로 다루게 될 시기도 우왕이 즉위하는 1374년부터 약 10년 동안의 기간이다.

시에는 정치나 학문적인 내용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일상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사 혹은 일상사적인 측면을 엿볼 수가 있다. 나아가 개인의 감정 기복이나 변화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시에 드러난 감성이 화자의 마음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색이 1376년(우왕 2) 와병 중일 때 지은 시에서

3) 한수(韓脩)와 한안(韓安)은 사촌지간이다. 다음은 간략한 가계도이다.



여기서 가문 구성원의 세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다. 다만, 한수의 청주 한씨 가문은 고려 후기 이래로 명문세족 기반 위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였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는 이제현(李齊賢, 한수의 처남 李彰路의 아버지), 안종원(安宗源, 한수의 사돈), 권중화(權仲和, 한수의 사돈) 등의 신흥유신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조선 건국 이후에는 한명회(韓明滄, 한수의 증손자), 한확(韓確, 한안의 손자) 등을 통해 명 황실, 조선 왕실과 혼인을 맺으면서 유력 가문으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칼로 도린 듯 끔끔 아파라. 위장은 기름불이 타는 것 같네.[목6-8]”라는 글귀를 보면,<sup>4)</sup> 그가 질병으로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다. 그의 병환은 곧 50세를 맞게 되었던 싱숭생숭한 감회와 얽히며 한동안 차도가 없다가 가을쯤에 낫는 듯 했는데, 이러한 일신상의 변화까지도 그들의 시에서는 읽을 수가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색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어서 일일이 설명하지 못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목은시고』의 편년 작업이 행해지기도 했다. 4,262편의 시를 모두 시간의 흐름대로 배치하고, 그것을 통해 그가 어디 살았고, 살림은 어떻게 했으며, 평소 무슨 일을 했고, 누구누구와 어울렸는지 하는 소소한 사실들을 미시사적으로 풀어냈다. 이 글과 관련해서는 1379년(우왕 5) 한 해 동안 이색이 어울린 사람이 약 100명 정도였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그 가운데는 과거에 급제한 신흥유신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도 고위 관료나 기로(耆老)들과도 폭넓게 왕래하였다. 승려들과도 왕래가 잦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글값을 매개로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sup>

이색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망이 어떻게 형성 가동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논문도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각 관계망이 취약성을 갖는 연성적(軟性的)인 네트워크로서 존재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나 커뮤니케이션 밀도의 변화에 따라 관계가 가변적이었다고 설명한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들 사이의 일상적 인간관계의 성격을 네 가지로 밝혀놓았다는 점이다. ‘과거제도를 매개로 한 유대와 결속’,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시문 교환’, ‘인간관계의 경제적 측면’, ‘인간관계망의 취약성’ 등이다.<sup>6)</sup>

4) 『목은시고』, 『유항시집』의 시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5) 이익주, 2013, 앞의 책.

6) 채웅석, 2006, 『목은시고(牧隱詩藁)』를 통해서 본 이색의 인간관계망 - 우왕 3년(1377)~우왕 9년(1383)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2.

이 연구에서도 시가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적다. 『유항시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유항집』이본에 대한 서지적 분석 및 그의 시 세계를 개괄적으로 다룬 글이 주목될 뿐이다.<sup>7)</sup> 이 번역 및 연구는 한수와 그의 시를 처음으로 다룬 성과이다. 다만 저자가 직접 밝혔듯이 향후 다른 연구들에게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수와 관련한 각종 기록들을 망라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이색과 한수의 교유관계에 대한 연구도 조금 있다. 우선, 국문학계에서 이색, 한수, 정추(鄭樞, 鄭公權) 세 사람의 교유를 시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들의 관계를 서로를 권면하고 보완해주는 ‘이우보인(以友輔仁)’으로 설명하였다.<sup>8)</sup> 또한 이색과 한수의 교유공간 ‘버들골’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수와의 교유가 공동의 정신적 지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9)</sup> 그런데 이상의 논문들은 문학적인 의미를 파헤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면이 있다. 각각의 시가 언제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다. 단, 그들의 논문은 문학적 감성이 부족한 필자의 논지를 보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목은시고』와 『유항시집』을 나란히 읽어가면서 이색과 한수의 관계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파악한 연구 성과는 없다. 특히, 『유항시집』은 편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시문의 분량이나 관련 연구 성과 측면에서 이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글의 논지가 이색과 한수의 교유관계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7) 박경신, 2001, 「『유항집(柳巷集)』이본고」, 『울산어문논집』 15.

박경신, 2004, 「한수와 그의 시세계」, 『한수와 그의 한시』, 국학자료원.

8) 안영훈, 2007, 「14세기말 사대부 교유시(交遊詩)의 한 양상 : 이색(李穡)·정추(鄭樞)·한수(韓脩)의 교유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7.

9) 김보경, 2007, 「牧隱 李穡의 버들골살이와 시」, 『동양고전연구』 27.

시문을 되도록 대등하게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단, 한수의 시는 고사(故事)도 별로 사용되지 않았고,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으며,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묘사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래도 이색의 시에 차운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목은시고』와 서로 관련시켜서 논지를 전개하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다.

## I. 『유항시집』의 작시 연대 및 구성

이 글에서 활용한 『목은시고』, 『유항시집』은 모두 『한국문집총간』(한국고전번역원 간행)에 영인본으로 수록되어 있는 판본을 대상으로 한다. 『목은시고』는 1626년(인조 4), 『유항시집』은 1602년(선조 36)에 중간본(重刊本)으로 간행된 판본이다.

우선 『목은시고』에는 4,262편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시가 있고, 앞서 언급한 대로 관련 연구도 꽤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은시고』의 작시 연대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목은시고』와 『유항시집』 모두 일부 시문 외에는 편년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대부분 1375년(우왕 1)~1384년(우왕 10)에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목은시고』는 총 35권 중에서 권6의 처음부터 34권의 약 2/3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우왕대에 저술한 것이다. 시문 전체에서 대략 84% 정도가 해당한다. 이색이 우왕 10년부터 14년 무렵에 시를 거의 짓지 않았기 때문에,<sup>10)</sup> 84% 시문의 작시 연대는 한수가 시를 즐겨 지었던 시기와도 맞물린다. 또한 『목은시고』에 한수가 등장한 시가 100편이 넘는다는

10) 1384년(우왕 10)부터 1388년(우왕 14)까지 지은 시는 약 10편 내외가 확인된다.

것도 주목할 점이다.<sup>11)</sup>

『유항시집』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서두에 권근(權近)이 작성한 서문[序], 이색이 지은 묘지명, 그의 사후 우왕이 내린 교서(敎書)가 있고, 마지막에는 초간본과 중간본을 간행할 때 윤희종(尹會宗; 1400년 作)과 한준겸(韓浚謙; 1602년 作)이 지은 지[識]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본문 내용이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47편(218수)이다. 권근이나 이색이 그에 대해 시문 짓기를 즐겼다가나 시로써 이름이 났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유항시집』에 수록된 것 외에도 꽤 많은 시를 지었으리라 추정된다. 권근은 서문에서 “그가 사망한 이후에 여러 아들들이 … 시 약간을 얻었으나 참으로 태산의 털끝[泰山之毫芒]”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즉, 『유항시집』에 남아있는 시는 한수가 지은 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목은시고』를 보더라도 짐작 가능하다. 이색은 각종 모임, 나들이 등에 한수와 자주 동행하였고, 그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분명 한수도 그때마다 시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중 일부가 『유항시집』에 수록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항시집』의 저작 연대는 대부분 우왕대지만, 앞부분에 실려 있는 11편의 시는 연대가 불분명하다. ‘送尙州牧使鄭[유11]’이라는 시는 막 상주목사에 부임하는 정양생(鄭良生)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정양생의 관력을 보면 1376년(우왕 2) 12월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다.<sup>12)</sup> 목사의 직위가 그리 높지는 않아서 [유11]의 저작 시기는 대사헌이 되기 전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하지 않다. [유11]을 비롯한 앞부분의 시문

---

11) 이색은 『목은시고』에서 한수를 지칭할 때, 호(號: 柳巷), 관직(사례: 韓簽書, 韓政堂, 上黨君), ‘서린(西隣)’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다만, ‘서린’의 경우에 한수가 아닌 권적(權適)을 지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정당의 사례에서는 한수를 가리킨다고 추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예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칭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수가 등장한 시문의 편수를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다.

12)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2년 12월.

들은 문집의 첫머리에 배열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이제현(李齊賢)과 같이 우왕대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왕 즉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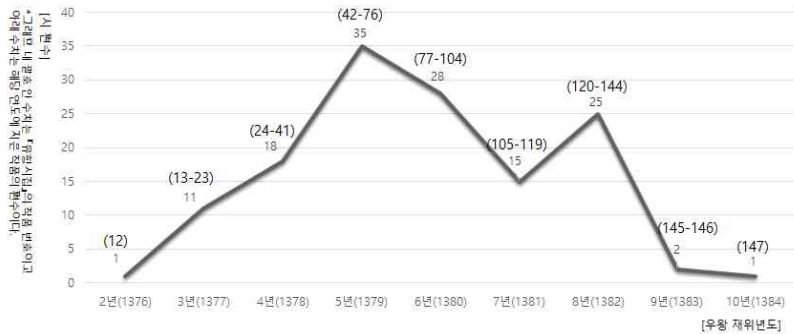
지어진 시기를 대략이라도 알 수 있는 시문은 ‘謫至陝州 送押送官趙光甫還京’[유12]부터 마지막 시 ‘安提學挽詞’[유147]까지이다. 시기상으로 1376년(우왕 2)부터 1384년(우왕 10)까지이다. 우선 [유12]는 한수가 1376년에 공민왕을 시해한 한안의 일족이라 하여 합주(지금의 함천)에 유배되었을 때, 동행했던 압송관 조광보(趙光甫)를 돌려보내며 지은 것이다. 당시 개경에서 합주까지 가는 여정은 열흘 넘게 걸렸는데, 한수는 그동안 압송관과 친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 죄인이 압송관과 동행했던 유배길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수는 그를 개경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유배된 처지, 병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서글픈 동행에 참여해 준 압송관 조광보에 대한 고마움 등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쏟아지는 물처럼”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최잔한 시골의 궁벽한[유14]” 유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한수는 이듬해인 1377년(우왕 3)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마지막의 [유147]은 안중온(安仲溫)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挽詞)이다. 안중온은 1384년 3월에 사망하였다.<sup>13)</sup> 만사의 마지막 글귀는 “하늘은 어찌하여 어진 사람에게 수명[壽]을 주지 않는가?”라고 하며 망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수 자신 역시 그 해에 52세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의 【그림 1】은 『유향시집』의 시문들([유12]~[유147])이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 각 연도별 분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일부 시문에는 정확한 연월일이나 계절, 명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시문 속 특정 인물의 과거 합격이나 입사(入仕) 소식을 비롯한 각종 사실은 『고려사』, 묘지명 등의

13)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0년 3월.

관련 사료를 통해 작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 작시 연대 추정이 보다 수월한 『목은시고』와 교차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어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시문도 있다. 다만 일부의 시는 저작 연도를 밝혀 놓지 않았고, 연도를 파악할 근거도 없다. 이러한 시문은 『유항시집』의 편차가 시간의 흐름 순이라는 전제 아래 저작 연도를 추정했음을 미리 밝힌다.



【그림 1】 『유항시집』의 시 저작 연도 분석

『유항시집』에 수록된 시문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수가 시를 짓는 시기는 유배된 이후부터이다. 즉, 우왕 재위 3년~8년 무렵에 지은 시가 대부분이다. 시문 편수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삶의 다양한 면모가 담겨져 있다. 유배 혹은 여행 중에 지은 시를 비롯하여 안부를 묻는 편지글 형태의 시,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시, 다른 사람의 시권(試券)에 지은 시, 자연에 대한 감흥을 읊은 시, 전별시, 추모시 등 다양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가(詩歌)에 창화(唱和)하면서 같은 운자(韻字)를 쓰는 형태의 차운시가 많은 편인데, 한수가 지은 대부분의 차운시가 이색의 시에 창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운시는 이색과 한수의 교류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 II. 이색과 한수의 차운시

차운시의 방법은 다양한데, 다른 사람의 시와 동일한 운목(韻目)<sup>14)</sup>에 속하는 운자를 쓰는 의운(依韻), 같은 운자를 쓰되 그 순서에는 구애받지 않는 용운(用韻)이 있다. 같은 운자를 순서까지 그대로 따라서 시를 짓는 차운의 형태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고난도의 화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화운이나 연구(聯句)와 같은 시의 형식은 마음 속 시상(詩想)을 구속한다고 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15)</sup> 그러나 차운시는 중국 당·송대 이후 매우 성행하였고, 고려 말의 이색과 한수도 차운하는 것을 즐겼다. 전통적으로 압운의 미학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시문도 기교에 힘쓰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생생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권근도 유향의 시문이 “간결하고 담백[沖澹]하며 여운이 깃들어 있다.”라고 평가하였다.<sup>16)</sup>

- 
- 14) 운서(韻書)를 편찬할 때에는, 모든 자음(字音)을 우선 성조에 따라 평(平)·상(上)·거(去)·입(入) 등 사성(四聲)으로 나누고, 같은 성조를 가진 자음들은 다시 운모가 같은 것끼리 분류하여 배열하였는데, 한자들을 한 묶음씩 배열한 가운데에서 한글자를 골라 그 운의 이름으로 삼고, 이를 운목이라고 하였다(『국어국문학자료사전』).
- 15) 강민호, 2012,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72.
- 16) 권근이 쓴 『목은집』 서문은 이색의 시를 조명하기보다는 그의 학문적 성과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색의 시문들을 살펴보면, 그 특질을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각종 경사(經史)를 언급하며 유학자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시들은 은일(隱逸)의 미학을 추구하며 정적이었다가도 자연을 논할 때는 소담스럽다. 일부는 시이기도 하지만 일기, 편지, 독서 감상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가끔은 한수와 같은 친구에게 장난스럽게 농담을 하며 해학과 재미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유항시집』에 차운시는 총 53편이 있다. 그리고 이 중 31편의 시가 이색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sup>17)</sup> 한수는 전오륜(全五倫), 김진양(金震陽) 이지직(李之直), 최영(崔瑩) 등의 관료에서부터 여러 승려들의 시에도 종종 차운했지만, 남아있는 시는 각 한 편씩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신의 아들 한상질(韓尙質), 한상경(韓尙敬)의 시에 차운한 것이 3편이 있다. 그만큼 『유항시집』에서 차지하는 이색의 비중은 크다.

차운시는 같은 운자를 쓰기 때문에 관련 시를 『목은시고』에서도 대부분 찾을 수 있다. 대개는 이색이 먼저 시를 짓고, 그 운자를 받아 한수가 차운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 내용은 두 배 이상 풍부해진다. 차운으로 연관된 두 시의 내용을 교차해서 검토하게 되면, 작시 연대 뿐 아니라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경험과 삶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운시에는 상련(賞蓮), 달구경 등을 보는 각자의 감성, 혹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누군가의 승진에 대한 생각 등이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한편으로 두 지식인의 문학적 교감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일단 한 사례를 통해 차운시에 담긴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九日 陪牧隱先生及諸公登崇文館後甘露寺南峯 次牧隱詩韻」[유115]의 제목을 보면, 1381년(우왕 7) 9월 9일 중구일(重九日) 명절에 한수는 이색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송문관(崇文館) 남쪽 봉우리에 올랐다. 시문을 읽어보면, 그날 “한 시대의 가장 멋스러운 인물들”이 모여 산봉우리에 올랐는데, 그 정취는 “소나무에 불어드는 서늘한 바람”과 “국화의 그윽한 향기”에 힘입어 무척이나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이 시에 나타난 광경은 『목은시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가 이색과

---

17) 박경신은 한수의 시 218수 중 109수(50%)를 차운시로 분석했다. 이 중 78수가 이색의 시에 차운한 것이고, 이외에도 목은과 관계된 수가 5수 정도 더 있다고 파악하였다(2004, 「한수와 그의 시세계」 『한수와 그의 한시』, 60쪽).

창화하여 작시했음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이색의 시는 「浩然 子安 子復 邀僕及韓孟雲先生 登松山左麓 作重九 至則鄭密直圃隱與慈恩祐世君 金山長老李判書士澗 已來相候 登其峯四眺 猶不滿意 稍西徙至甘露寺南 峯 則敞豁益甚 酬酢吟詠 更約菊花會重開 至夜分乃歸 李清州士穎 鄭副令 又其後至者也 明日追思 已如夢中 情不能已 吟成」[목30-39]이다. 제목부터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가 언급한 “멋스러운 인물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대목이다. 이색과 한수를 비롯하여 이집(李集), 이승인(李崇仁), 민안인(閔安仁), 정몽주(鄭夢周), 이사위(李士澗), 이사영(李士穎), 정부령(鄭副令)<sup>18)</sup>, 그리고 자은종(慈恩宗)의 승려 우세군(祐世君, 法泉大師)<sup>19)</sup>, 금산장로(金山長老) 등 열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승려가 아닌 사람들은 당대 신흥유신의 핵심적 인물들로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신흥유신’은 고려 후기 성리학자로서 과거에 급제한 관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세족과 사대부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sup>20)</sup> 이러한 ‘신흥유신’ 개념은 기존의 세족과 사대부의 대립 구조를 부정하기보다는 고려 말의 정치세력, 사회세력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려 후기의 반원운동, 위화도회군 등을 거치면서 신흥유신은 분기하고 대립하였고, 전제개혁을 통해서는 사회경제적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세족과 사대부의 대립 양상이 극

18) 정구(鄭矩) 혹은 정홍(鄭洪)으로 추정된다.

19) 법천대사와 관련한 시문은 『목은시고』에서 이색과 왕래하며 시 혹은 선물을 주고 받은 기록이 여러 편 있다. 전년도인 우왕 6년(1380) 9월에도 이색은 한수, 안보(安輔)와 함께 자은사(慈恩寺) 당두(堂頭, 주지) 법천대사를 만나고 있었다. 이색은 “앉아서 좋은 차 마셔 창자를 맑게 씻고” 나서 헤어졌고, “꿈속에서도 서로 손 잡고 산에 노닐었다”는 아쉬움을 표하였다[목26-2]

20) 이익주, 1998, 「고려말 신흥유신의 성장과 조선 건국」, 『역사와 현실』 29, 16쪽. 위 논고에 앞서서 『역사와 현실』 15(1995)에서는 신흥유신에 대한 김순자, 박재우, 이익주, 최연식, 홍영의 등의 공동 연구가 있었다.

명해졌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왕대에는 신흥유신의 결집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왕 집권 이후 공민왕대 개혁에 참여했던 신흥유신들이 대거 정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색, 한수를 비롯하여 그들과 어울린 사람들의 만남을 신흥유신의 결집 양상의 한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목은시고』에도 자주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편수가 적은 『유항시집』에는 등장 횟수가 드물지만, 『목은시고』를 통해서 이색, 한수와 자주 어울려 모임을 갖거나 시를 주고받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1381년 중구일의 모임으로 돌아가 보자. 이색은 이 날의 모임에 대해 쉽사리 흥취를 거두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시를 통해 “자은사에서 또 함께 들 노닐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七月七日作一會 九月九日又作一會 未知後當如何 吟成以誌」[목30-40], 「又用七夕詩韻 賦九日」[목30-41]의 두 편 시를 덧붙이며 “우리들의 단란한 모임 어찌 우연이라 할까.”, “내년에는 꽃구경 모임 내가 주선해 봐야지.”, “벼슬길에 가끔은 쉴 줄도 알아야 하리이다.”의 구절들을 채웠다.

이런 모임은 이미 여러 차례 갖는 것이었다. 두 달 전 7월 7일 칠석날에는 이집, 정몽주, 이사위와 함께 자하동에서 모였다고 했는데, 「與李浩然遊紫霞洞 鄭圃隱密直 李判書士渭携酒相尋 至晚而歸」[목30-3]의 시가 해당된다.<sup>21)</sup>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그날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은시고』 전체의 편년 순서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때도 이색은 장마철 폭우가 그친 후의 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돌아왔다. 이집, 정몽주, 이사위가 동행하였는데, 이색은 “유학자[斯文]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하늘의 선물[天賦]”이라고 기록하였다. 단, 한수가 같이 가지는 않은 듯하며, 칠석날에 동행했던 이집, 정몽주 등

21) 그때 정몽주가 차운한 시도 『포은집』(권2, 次牧隱先生詩韻)에 남아 있다.

이 다시 중구일에 이색, 한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던 듯하다.

다시 1381년(우왕 7) 중구일의 모임으로 돌아와 그들이 시문 창화 형태를 보면, 한수와 이색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시 짓기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

[목30-39]	[유115]	[둔촌잡영]	[포은집]
重陽盛會盡高流。	一時人物最風流。	九日歡娛接勝流。	光陰袞袞似川流。
獨我支離雪滿頭。	甘露南岡會上頭。	東頭上客我西頭。	富貴何人是徹頭。
咳唾隨風天上落。	涼吹入松微韻作。	登高便覺青冥近。	喜共耆賢成邂逅。
光輝照世日邊浮。	幽花如菊暗香浮。	飲僞從教太白浮。	合將身世信沉浮。
杯盤錯落繼以夜。	遠濃近淡群山晚。	短日易曛須待月。	黃花綠酒價佳節。
風露淒涼知是秋。	心廣神怡極日秋。	清霜初落又徂秋。	白髮烏紗照暮秋。
欲把黃花籌酒去。	老我爾來無可意。	菊花不得吹杯酒。	聚散固知元有數。
慈恩寺裏又同游。	斯辰天不阻斯游。	采采金英一再游。	明年何處得重游。

【그림 2】 1381년(우왕 7) 9월 9일, 중구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창화 형태

한수는 이색의 시에서 1, 2, 4, 6, 8구의 마지막 운자를 가져와서 시를 지었다. 그런데 이집의 『둔촌잡영(遁村雜詠)』,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에서도 그 때의 차운시를 찾을 수 있었다.<sup>22)</sup> 위의 【그림 2】를 보면, 모두 7언율시의 체제 아래 같은 운자를 쓰고 있다. 이외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창화하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시문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 중 이색, 한수, 이집, 정몽주가 지은 시문들이 당시의 나들이 모습을 보다 풍부한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다. 이집은 늦가을을 보내는 그 곳의 흥취를 시구에 담았고, 정몽주는 “기쁘게도 나이 든 현인을 해후했으니 한평생 세상살이 같이 하리라.”라고 화답하였다.

이와 같이 시문의 창화를 통해서 고려 우왕대 칠석날, 중구일에 나들

22) 『圃隱集』 권2, 次牧隱先生九日韻 ; 『遁村雜詠』, 七言四韻律, 次九日諸公韻.

이를 떠난 유학자들과 승려들의 문학적 교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이색, 한수 뿐 아니라 이집, 정몽주 등도 참여하고 있었고, 이는 교유관계의 한 사례로서 설명될 수 있다. 대체로 명절을 맞아 함께 나들이를 떠난 것이었고, 시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한 정치적 논제에 대한 대결 양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자연과 술을 벗 삼아 나들이에 대한 흥취를 돋우려는 내용이 주로 담겼지만, 신흥유신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들 사이의 잦은 모임에 대한 기쁨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들의 결속 양상은 다른 시문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지고 확장될 수 있다. 『목은시교』에는 정몽주와 관련한 이야기도 많다. 이색은 1379년(우왕 5)에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정몽주가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학문과 교분을 나눈 이래 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줄곧 갖고 있었는데 [목15-15, 목15-61], 그가 승진을 하거나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에는 시를 지어 그를 격려하였다.[목27-53, 목28-40, 목32-13] 예부시 장원들의 모임인 ‘용두회(龍頭會)’에 같이 참여하였고[목31-75], 정몽주를 비롯하여 이집, 이승인 등이 모여 문장과 술을 나누는 것[목31-9]도 빈번하게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색이 한수와 함께 정몽주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목31-101, 목32-49] 1384년(우왕 10)에는 두 사람 모두 병이 들어 한 동안은 왕래가 끊어졌다는 시문 내용도 있지만[목34-39<sup>23</sup>],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후 시기는 이색의 시문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마지막 권35에 공양왕 즉위 이후 이색이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려다 유배되어 썼던 170편의 시문 중에 정몽주는 다시 등장한다. “나는 비방을 해명할 생각도 이미 없소이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시 조정에 나가리

---

23) 시문에는 ‘정첨서(鄭簽書)’라고 표현되어 있어 누군지 분명하지 않지만, 정몽주의 첨서 관력, 시문에 “삼장(三場)에서 잇달아 장원하고 경학으로 성현을 이어받으신 분”이라는 표현, 동북면으로 나간다는 소식(『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0년 4월) 등을 종합해 보면 정몽주임을 파악할 수 있다.

까.”[목35-長湍吟43], “우리에 갇힌 원숭이 신세가 됐소.”[목35-咸昌吟14] 라는 내용으로 정몽주에게 보낸 몇 편의 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성(臺省)의 탄핵이 쉴 사이 없이 이어지는 중에 오천(烏川, 정몽주)의 뜻밖의 화가 사람 마음 놀라게 한다.”[목35-衿州吟6] 는 시문에서 정몽주의 피살이 설명되어 있다.

이렇듯 1381년(우왕 7) 중구일의 서늘한 가을바람과 국화꽃의 향기에 취해 있었던 모임에서 나온 여러 편의 시들은 차운을 통해 연결되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 주고, 다시 두 달 전 칠석날의 모임으로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신흥유신에 대한 『목은시고』 시문은 그 후의 상황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일례로 정몽주에 대한 시문을 통해, 고려 말 신흥유신이 분기되어 조선 건국을 둘러싼 대립관계로 나아가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유배를 당한 이색의 복잡한 심경까지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차운시에 대해 압운에 구속되어 기교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차운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작시하던 당시 그 공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편년만 확실하다면, 관찬 사료의 보충도 가능하다고 본다.

### Ⅲ. 우왕대 이색과 한수의 교류관계

#### 1. 우왕대 이전의 관계

한수는 이색보다 5세 아래였지만, 나이 차이는 별 상관이 없었다. 한수에게 있어서 이색은 스승이자 친구였다.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 동반자이면서 이웃이기도 했다. 대체로 한수는 이색을 ‘목은선생(牧隱先生)’, 이

색은 한수를 ‘유항선생(柳巷先生)’으로 칭하였지만, 시문의 은유적 표현으로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였다. 한수는 이색에 대해 “백세사(百世師, 백세의 스승)”, “사백(詞伯, 걸출한 문인)”, “진오사(眞吾師,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고 칭하고[유75, 78, 134], 이색은 한수를 “차가운 옥호(玉壺)”, “가인(可人, 아끼는 사람)”[목9-38, 목12-48] 등으로 지칭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343년(충혜왕 후4) 혹은 1344년(충혜왕 후5) 무렵에 시작되었다. 한수가 그의 나이 52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두 사람의 교류는 약 40년 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색은 한수의 묘지명에서 십대 시절 그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였다. 이색이 16·7세였을 때 개경 묘련사(妙蓮寺)에 가서 노닐다가 자신보다 어린 12·3세의 한수를 만났다.<sup>24)</sup> 고즈넉한 산사의 승려들과 유학을 배우는 학동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대구(對句)를 하며 시를 지었는데, 이색은 그 곳에서 한수가 출중한 작시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밝히지 않아서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기억을 소개하였다.

이들의 관계 역시 신흥유신의 결집 양상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색과 한수는 이제현(李齊賢) 문하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수는 어릴 적 이제현에게 『좌전(左傳)』,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을 배웠고,<sup>25)</sup> 이색은 1353년(공민왕 2)에 지공거 이제현, 동지공거 홍언박(洪彦博)의 주관으로 치러진 예부시에서 장원을 하였다.<sup>26)</sup> 『유항시집』의 첫 번째 시가 이제현의 『동국사영(東國四詠)』을 받들어 창작한 것이고[유1], 『목은시고』에서 이제현의 문생이 되었다는 기쁨을 “내 헛된 명성이 좌중을 놀래게 할 만한 것은 익재(益齋) 선생 문하의 장원랑(壯元郎)인 때문이

24)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세이지만, 이색이 지은 한수 묘지명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각각의 나이를 “16·7세”, “12·3세”로 기록해 두었다.

25) 『유항시집』, 韓文敬公墓誌銘 (이색 撰).

26) 이색의 아버지 이곡(李穀)도 1320년(충숙왕 7)에 지공거 이제현이 주관한 예부시에서 합격하였다.

라오.[목2-83]”라고 서술한 것은 그들의 이제현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고, 더불어 이제현을 주축으로 하는 신흥유신 결속의 방식이기도 하다.

당시 좌주와 문생 간의 긴밀한 관계가 신흥유신의 결집에 기여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한수는 15세(1347, 충목왕 3)가 되었을 때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동지공거로 주관한 과거에서 합격하였다. 좌주의 아들인 종백(宗伯)도 좌주, 문생 간의 인적 관계에서 주요한 비중이 있었다. 이색과 한수는 어린 시절의 인맥에 과거를 매개로 하는 인연을 추가로 맺게 되었다. 훗날 1376년(우왕 2)의 일이지만, 한수가 동지공거로 예부시를 주관했을 때 이색의 둘째 아들 이종학(李種學)이 급제하면서 삼대에 걸친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sup>27)</sup> 이색이 신흥유신의 결집에 학문적으로도 핵심적 위상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관련된 인맥을 견고하고 긴밀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한편, 헌사(憲司)에서는 충목왕 3년의 과거 선발에 대해 ‘사정(私情)’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하였다.<sup>28)</sup> 한수가 헌사의 탄핵 이유가 되었던 “학문이 변변치 않은 권세가의 자제”로 꼽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시 거족이었던 청주 한씨 집안의 15세에 불과한 “가장 어린”[유45] 합격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할 수는 없다. 헌사의 탄핵 배경을 파악하거나 타당성을 판가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색은 한수의 묘지명에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때의 논란을 변호하는 기술을 남겼다. 1379년(우왕 5)에도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청주한씨 집안에서 한수와 같은 군자를 배출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우왕 2년 예부시 지공거는 홍중선(洪仲宣)이다. 우왕 5년 2월경에 홍중선은 권중화와 함께 이색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이색은 “임명장이 밤에 내려오니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웠던가.”라는 소회를 표현하기도 했다[목15-33].

28) “이곡과 허백(許伯)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학문이 변변치 않은 권세가의 자제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헌사(憲司)가 이를 탄핵하였다.”(『고려사』 권109, 열전 권제22, 李穀傳)

[목9-38] 그리고 “<아버지의> 문생이 몇 남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문들은 오랜 세월 교유를 했던 친구에 대한 학문적 신뢰와 아버지의 과거 선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하고 있다. 물론 한수가 이제현의 문하에서 공부했고, 이색과 교유했으며, 권근과 같은 유학자에게서도 깨우침을 주었던 것으로 보아 학문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한수가 급제한 이후 몇 년 간은 이색과 빈번히 교유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한수는 덕녕부 주부(德寧府注簿), 정방 비직시(政房必閣赤) 등을 역임하면서 꾸준히 관직생활을 했지만, 1348년(충목왕 4)에 이색은 원 국자감에 유학하였고, 1351년(충정왕 3)에는 부친 이곡이 세상을 떠나자 삼년상을 지냈다. 1353년(공민왕 2)에 예부시에 급제하였지만, 이후 다시 원으로 가서 제과 합격 후 관직생활을 하였다. 이색은 수년 간 원과 고려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던 것인데, 1356년(공민왕 5)에 원 정세가 점점 쇠퇴하자 다시 고려로 돌아왔다. 공민왕의 이른바 ‘반원개혁’이 시행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후 공민왕대에는 두 사람 모두 20-40대의 관료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관직 생활이 매우 분주했는지, 아니면 공민왕대 지은 시 일부가 산일(散逸)되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시문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색의 경우에는 공민왕대 지은 300편 가까운 시문이 있다. 우왕대에도 자주 공민왕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듯[목10-61, 13-1, 14-97, 15-23, 15-83 등], 그에게는 공민왕대가 인생의 최고 절정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수 역시 공민왕의 성리학 중흥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궁(學宮, 성균관)에서 유학을 강명(講明)하여 생도에게 은혜를 베풀고, 원 수도에서 아악(雅樂)을 가져와 번성케 하였다.[유75]”고 하면서, 공민왕의 치적을 부각하였다.

공민왕대에 이색은 국자좨주, 추밀원 승선, 밀직사 대언 등을 역임하

며 빠른 승진을 거듭하였고, 1361년(공민왕 10)에 흥건적 침입 때 호종하여 공신에 책봉되기도 했으며, 1367년(공민왕 16)에는 성균관 증영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또한 한수도 병부시랑, 국자좌주 등을 역임하였고, 흥건적 침략 때 호종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한수는 공민왕의 신돈(辛旽) 기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처하였고, 이내 정계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다.<sup>29)</sup> 이제현 문하에서 공부를 했던 한수가 스승의 정치적 입장을 따랐는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판단으로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 이색은 신돈의 기용에 반발했던 행적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훗날 1379년(우왕 5) 윤5월 무렵에 신돈을 “짐독(鴆毒)”이라 표현한 시구가 있다.[목16-132]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비난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신돈의 기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왕 즉위 이전 이색과 한수는 10대 시절의 첫 만남, 방백과 문생이라는 인적 관계, 20~40대의 관직 생활 등을 통해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다. 1368년(공민왕17)에 이강(李岡)<sup>30)</sup>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벗이 만약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남겨놓고 죽었다면, 우리 세 사람이 책임지고 드러내주어야 할 것이다.”라는 다짐 하에 이색이 명(銘)을 쓰고, 한수가 글씨를 쓰며, 전액(篆額)은 염흥방(廉興邦)이 쓰는 역할 분담을 하였다.<sup>31)</sup> 젊은 시절에는 각자의 바쁜 삶을 영위하느라 빈번

29) 『유항시집』, 韓文敬公墓誌銘, “을사년(공민왕 14, 1365) 봄 신돈이 국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 행적이 대단히 비밀스러웠다. 공이 그것을 알아 비밀히 왕에게 ‘신돈은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난을 일으킬까 두려우니 임금께서는 살피십시오. 제가 아니면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은 한창 신돈을 총애하여 여름에 <한수> 예의판서(禮儀判書)로, 가을에 군부판서(軍簿判書)로 임명하였다. 이는 공을 멀리하고자 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부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쳤다. 왕은 앞의 말 때문에 계속 관직을 주지 않았다. 신해년(공민왕 20, 1371) 가을 신돈이 숙청되자 국왕은 “한모(韓某)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급히 부르라” 하고, 영록대부 이부상서 수문전학사에 임명하였다.”

30) 이강 역시 1347년(충목왕 3) 과거에 15세로 합격하였다. 따라서 이색은 이강에게도 방백이 된다.

하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간의 우정이 약해졌던 것은 아니었다.

## 2. 우왕 즉위 이후 ‘버들골 이웃’의 잦은 만남

한수와 이색의 교유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우왕대이다. 이색은 1371년(공민왕 20)에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우왕대 14년 동안 정계에 활발하게 나아가지 않았다. 1380년(우왕 6) 정당문학, 1382년(우왕 8) 판삼사사 등을 역임하지만,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다. 1386년(우왕 12)에는 지공거로서 염홍방과 함께 예부시를 주관하기도 했다.<sup>32)</sup> 한수 역시 실직으로 관직생활을 한 기간이 드물다. 유배되기 이전 1376년(우왕 2) 동지공거로 예부시를 주관하였고, 1383년(우왕 9)에 우왕 비 근비(勤妃)의 부(府)인 후덕부(厚德府)의 판사에 임명되었던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관직에 있지 않았다.

우왕대에는 두 사람 모두 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있어 자주 왕래하였다. 1377년(우왕 3) 사월초과일에는 여주와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는 금사령(金沙嶺)으로 나란히 말을 타고 가서 연등회를 구경하고 왔다. 젊을 때는 거의 가보지 않았지만 “늙고 병들었다”고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게 되는 50세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구경하게 된 연등회는 “꿈에서 노니는” 듯했다.[목11-37] 그리고 오랜만의 연등 구경에 밤새 코골며 잘 정도로 피곤했던 터라 한수에게 시를 창화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날의 일이었다. 한수는 이색의 시에 차운하여 전 날 “연등회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저녁 이슬 내릴 때까지 구경을 하게 되었

31) 『목은문고』 권18, 文敬李公墓誌銘.

32) 이익주, 2013, 앞의 책, 221~230쪽.

음”을 이야기하였다. 부처를 부르던 아이들이 새로운 말[新語]을 하는 것을 듣고는 “유풍(遺風)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언급하고는 시를 마무리했다.[유18]

다소 사소한 이야깃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생생한 일상이 차운이라는 시 형식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정계에서 벗어난 두 사람이 술과 자연 등을 벗 삼아 시문을 창화하는 것은 점차 잦아졌다. 정치적으로는 공백기인 반면, 시 문학적으로는 융성기였던 셈이다. 한수는 “속세에 떨어져” 있었고, “부명(浮名)에 몸을 얽어매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유33] 정계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함천에 유배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자신을 위로하였다. 이색은 “공은 도연명(陶淵明)이요 나는 소강절(邵康節)이네[목19-82]”라고 자신과 한수를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정계 밖의 생활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다지며, ‘두보(杜甫)’[목9-101, 목19-28, 유38, 유47]처럼 시 짓는 것으로 일상을 영위하다가 나중에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귀를 씻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유48]

더욱이 1378년(우왕 4) 무렵에 이색이 한수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 서, 그들은 이웃이 되었다. 이색은 조정의 부름 받지 못해 “쓸모가 없으니 마땅히 한산(韓山)으로 돌아감이 어떠할지[목7-111]”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다. 한수와는 만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무엇보다 시문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은 위안이 되었다. 이색은 “문득 두통이 생겨 괴로울 때 쇠를 울리는 듯한 공의 시구를 기다린다.[목11-106]”고 했듯이, 한수와의 시문 창화에 대한 즐거운 낙이 있었다. 이색이 이사 간 곳 버들골(柳里, 柳洞, 柳村)은 한수가 호(柳巷)를 삼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공간이었다.<sup>33)</sup> 사람들이 많이 사는 촌락은 아니었던 듯하

33) 김보경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5, 개성부 하), 『記言別集』(권9, 良醞洞古蹟記)를 근거로 하여 버들골이 양온동(良醞洞) 혹은 그 안의 작은 마을로 추정하였다. (2007, 앞의 글)

다. 이색은 “버들숲 깊은 곳이 고요하여 먼지가 없다.”고 묘사하며, “선생께서 이웃에 살기를 허락한 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감사의 표시를 했다. 한수 역시 “공이 집을 사서 이웃이 된 것이 기쁘다”는 것을 시구로 나타냈다[유33].

이렇듯 그들은 50세를 전후하여 같이 버들골에 살면서 노년기를 함께 하였다. “두 늙은이[兩翁, 목10-19]”는 집이 가까워 밤에도 들러 술잔을 같이 기울이기도 했고[목8-125], 서로의 가족이나 문생과도 친밀했으며 [목8-108, 목11-20, 목16-16, 목20-134, 목25-103], 특별한 구경거리가 생기면 항상 생각나는 친구였다[목24-98, 유134]. 이색은 “가난해서 여러 반찬을 곱하지 못한다.”[목9-97]며 가끔씩 궁색한 생활의 면모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수는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편이다. 이색의 집에 매번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목15-56]

1380년(우왕 6) 중구일에는 두 가족이 함께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색은 명절 아침에 초청해 주는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색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자 가동을 한수의 집에 보내어 물었더니, 한수도 갈 곳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색은 곧 “동쪽 이웃은 초대해 주는 이 없고 서쪽 이웃은 아무데도 갈 곳 없어 버들골의 두 선생이 적적하게 국화만 마주해 있다.”는 시를 “장난삼아” 지어 보냈다.[목25-101] 그러자 한수는 동생 한리(韓理)와 함께 이색의 집에 들렀다가 같이 밖으로 나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명절을 즐겼다. 그 아들들인 한상질, 이종덕, 이종학, 이종선 등이 동행하였고, 그 곳에서도 시의 향연이 행해졌다. “좋은 때 좋은 경치에 애들까지 모여”[목25-103] “고기와 나물 안주를 먹으며... 도사(陶謝)의 시를 낭랑히 읊으니 좋다고 하는 소리가 떠들썩한[유91]” 정취가 이어졌다.

이색과 한수는 “늘 말안장을 나란히 하며 다닌다.[목16-103]”고 할 정

도로 자주 만났다. 또한 이색과 한수의 문생들은 총 200명이 가까울 터인데, 종종 문생들이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좌주를 위한 연향을 베풀 때에도 대부분 같이 참석하곤 했다. 관련 시들이 두 문집에 많이 남아 있다. 그들의 후학이자 두 문집의 서문을 쓴 권근(權近)은 그들의 시문 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년에 한가하게 지내면서 또 <유항은> 목은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서 지팡이와 신발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로> 만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왕복하였으니, 두 늙은이의 풍류와 높은 운치는 그 시를 읽으면 가히 생각해 볼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권근의 생각은 그의 좌주 이색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색은 50세가 넘은 노년기에 벼들골 이웃인 한수와 함께 시를 읊으며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또 다른 시로 표현하였다.

벼들골에 사는 우리 두 노인네	柳里有二老
생의 늙그막에 조용하고 고적한 생활	窮年守幽獨
봄바람 불 땐 뜨락의 꽃에 취하고	園花醉春風
무더울 땐 누각에서 비를 읊는다오.	樓雨吟炎溽 <sup>35)</sup>

위의 시는 1380년(우왕 8)에 또 다른 친구 정추가 세상을 떠난 후 지은 것이다. 이색은 병이 들어 정추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비참함을 느껴 시를 지었지만[목32-108], 그나마 한수에게 편지를 보내 “생의 늙그막에” 꽃구경과 시 짓기로 여생을 살자는 다짐하며 위안을 삼았다. 그 당시 인간관계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천에 따라 연성적이고 가변적이었지만,<sup>36)</sup> 이색과 한수는 오랜 세월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갔다.

34) 『유항시집』, 柳巷詩集序 (권근 撰).

35) 『목은시교』 권32-110. 呈柳巷.

### 3. 벼들골의 화제(話題)

우왕대 이색과 한수는 “속세와 멀어졌다.”[목8-7]라고 말할 정도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왕명이 있으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1377년(우왕 3)에는 우왕의 명령으로 공민왕 내외의 명복을 비는 광암사(光巖寺, 廣通普濟禪寺) 비문의 작성과 글씨를 이색과 한수가 맡았다.<sup>37)</sup> 이때의 비문 건립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색의 활동 재개와 인간관계 회복으로 설명되기도 했는데,<sup>38)</sup> 이색은 그 무렵 광통보제선사 비명 건립이나 공민왕에 대한 기억을 시로 자주 표현하였다.<sup>39)</sup> 1379년(우왕 5)에는 신록사 비문을 쓰는 일로 바빴다. 특히, 『유항시집』에는 총 15편[유54~70]에 해당하는 시문이 신록사 비문을 제작하기 위해 여주에 다녀왔던 일정 속에서 지어진 것이다. 회암사, 두미원, 용진, 양근, 여주(신록사, 여흥루, 고달사), 원주 등을 여행하면서 시를 지었고, 사찰에서 승려와 교류하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들은 성리학을 수용한 유학자였고, “공자(孔子)와 안자(顏子)는 비록 멀리 있어도 나의 스승”[유89]임을 항상 마음에 새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루하루를 독서로 채우며 성리학의 도를 전하고자 부심하였다. [목13-39, 목16-151] 또한 시를 짓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1376년(우왕 5) 2월의 어느 날, 이색은 며칠 동안 앓고 난 후 봄비 소리를 들으며

36) 채웅석, 2006, 앞의 글, 104~107쪽.

37) 『牧隱文集』 권14, 「廣通普濟禪寺碑銘」.

38) 이익주, 2013, 앞의 책, 243쪽.

39) 목8-112, 목8-115, 목8-116, 목9-114, 목10-19·43·44·48·49 외에도 꽤 여러 편의 광암사 관련 시문을 지었다. 이색과 한수는 정추, 엄흥방(廉興邦), 박형(朴形) 등과 함께 광암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이색의 경우 간혹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한 소회를 시문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 무렵 광암사에 머물던 환암(幻庵) 혼수(混修)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고려 말의 불교계를 주도했던 환암 혼수와 신흥유신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목은시고』의 사료적 가치는 높다.

하루 종일 책을 읽다가 시를 지었다[목15-42]. 그리고 한수 역시 이색의 시운을 가져와서 창화하였다[유48]. 이처럼 이색이 먼저 시를 짓고 한수가 그 운자를 가져와 창화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새해, 단오, 칠석, 중구일 등의 명절을 기념하여 모임을 가졌고, 연등회 등의 불교 행사 등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가끔은 누군가의 초청으로 나들이를 하거나 모임을 갖기도 했다.

성리학 유생들과의 만남은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게 했던 한편, 변화한 세태에 대한 아쉬움과 뒤섞여 복잡한 심경으로 표현되었다. 1376년 6월 무렵 이색과 한수는 안심사(安心寺)에 가서 9재(九齋)의 학생들에게 시제를 내주고 “촛불이 타들어가기 전에” 시를 제출[刻燭賦詩]하도록 했다. 민중리(閔中理), 이종학, 한상경, 안경검(安景儉) 등 여러 사람이 동행하였고, 이색은 그때의 일을 “꿈속의 일”과 같다고 할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과거 공민왕대의 성균관 중영과 9재의 개설은 “유생들을 도성에 가득 하게” 만들었다. “여름철의 도회(都會)에서는 반드시 각촉(刻燭)으로 하였고, 토론과 강습을 부지런히 하였다.” 그러나 우왕 즉위 이후 당시의 세태는 “풍습과 세도가 바뀌어 제멋대로 되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오랜 만에 하게 된 각촉부시는 그야말로 감개무량했다.[목18-51] 한수도 성리학 중흥과 관련한 공민왕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성리학이 쇠퇴하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졌다.[유75]

그들에게 있어 관심 있었던 부분은 한적한 일상보다는 고개 넘어 개경 도성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여러 유학자나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공유하였다. 이색의 인적 관계에는 당대 신흥유신의 핵심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색이나 한수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따라서 시에 나타난 그들의 일상을 국가나 조정의 상황과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

다.40) 하지만 조정의 정치권력관계와 같은 것은 대체로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 영역 밖의 사안이기도 했다. 가끔 정치 세태를 은유적으로 꼬집어 비판하는 듯한 구절들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한편, 누구나 알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는 적극적으로 시로 읊었다. 우왕대에는 국내 정치상황도 안정되지 못하였지만, 대외문제와 관련한 논제도 심각했다. 원명 교체에 직면하였고,41) 왜구의 침략도 빈번하였다. 특히, 이색과 한수는 왜구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었고, 간혹 침략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왜구는 “경인년(1350, 충정왕2)에 개처럼 도둑질을 시작하더니 해마다 점점 올빼미처럼 날뛰었는데,”[목11-53] “초기에는 쥐처럼 국경을 침범하다가 점차 포악을 떨쳐 서울을 위협하는”[목11-48]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한수는 합천에 유배되었을 때 왜구의 실상을 목격하였다. “왜구가 자주 침략하니 군관(軍官)의 왕래가 잦고, 고달픈 백성들은 수자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려 정부의 왜구 대책은 미비하였고,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지방의 재정은 바닥났다. 한수는 유배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너리에는 왜구의 피해로 인해 힘든 합천의 상황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있었다.[유17]

1378년(우왕 4) 한수는 고려에 와 있었던 일본 승려 천우(天祐)에게

---

40) 『포은집』(정몽주), 『양촌집』(권근), 『삼봉집』(정도진), 『적악재집』(김구용), 『둔촌잡영』(이집) 등도 시간의 흐름대로 시문이 편차되어 있지만, 시문 편수가 많지는 않다. 다만 차운 방식을 염두에 두며 각 시문을 교차 검토하면, 신흥유신의 교유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생동감 있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1) 원·명 교체에 대한 이색의 생각과 현실인식은 이익주의 글(2013, 앞의 책, 131~17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유향시집』에서는 원·명 교체에 대한 한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유50] 「영모정(永慕亭)」이라는 시에서 “지원(至元) 천자가 황극(皇極)을 세워 산의 사다리와 바다의 배로 남북이 따로 없었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원 세조 쿠빌라이 때의 전성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시를 지어 주면서 왜구 침략을 자제시킬 방안을 찾아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의 어조는 침착한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강경하게 “이웃나라를 사귀는 데는 진실로 도가 있으니, 난폭함을 금하게 하라고” 요청하였다. [유30] 그리고 경상도안렴사 강득화(康得和)에게 보낸 시에서는 전년도에 목격한 왜구의 노략질이 잠잠해졌으리라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유31]

이 무렵의 『고려사』의 왜구 관련 기록을 보면, 고려 정부에서는 삼남 지역의 왜구 침략에 대해 병기 제작, 연호군 방비 등의 전략을 구상하는데에 집중되어 있다.<sup>42)</sup>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져만 갔는데, 당시 기록에는 정작 피해가 집중되었던 백성들에 대한 고민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수는 실질적인 대민 행정을 수행하는 안렴사를 전송하면서도 왜구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전달하고 있다.

왜구에 대한 걱정은 그들을 물리치는 장수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문으로도 남아있다. 당시 왜선이 개경 남쪽 승천부(昇天府)까지 들어와서 도성을 침략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하자, 계엄이 내려지고 성 안이 혼란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계(李成桂), 양백연(楊伯淵) 등과 함께 최영이 왜구를 전멸하였고, 조정에서는 최영의 공을 기려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내려주었다.<sup>43)</sup>

이색과 한수도 시를 지어 최영의 공적을 칭송하였다. 이미 최영은 “흰 머리 흰수염에 두 볼이 붉으레한” 63세의 노장이었지만, 이색은 ‘태산 같은 공(功) 위에 태산 같은 공을 더하여’ 고려 사직이 편안해질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목11-57]. 그리고 한수는 최영의 승전을 축하하는 한편, 최영의 ‘청백(淸白)’함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수는 최영의 가풍이 청렴결백하여 그 집에 ‘썩어 불거진 곡식’이 없음을 노래했는데,[유24] 당시 권문(權

42) 『고려사』 권81, 지35, 병제(우왕 2년 7월, 우왕 3년 5월 등).

43)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4년 4월.

門)의 토지 검병 폐단이나 탈점 행위가 극심했던 상황과 매우 비교된다.

그러나 왜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그치지 않았다. 1380년(우왕 6)에는 왜구가 충청도 결성(結城), 홍주(洪州) 지역을 침범하자<sup>44)</sup> 이색은 피난을 고려하기도 했다.[목23-175] 그런 와중에 그해 9월에 남원 황산전투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온 이성계, 변안열(邊安烈) 등의 개선 소식은 개경 일대를 들쭉거리게 했다. 연회가 베풀어지고 그들의 무공에 대한 칭송이 가득했다. 그러나 병이 들어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 목은 이색은 그러한 광경을 “진정(眞將)이 아주 수월히 적을 소탕하였으니 삼한의 기쁜 기색이 모두 여러 공들에게 모인다.”고 묘사하였다. 한편, 한수는 직접 축하 자리에 갔는데, 이색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이성계의 “도량이 참으로 바다와 같음을 알려고 하는데 세상을 뒤덮는 공을 이루고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네.”라는 칭송이었다. 이 무렵 이성계는 왜구를 격퇴하면서 정치적 명망을 쌓아갔고, 그러한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색의 시에 김구용, 권근 등도 찬화하며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고”, “삼한을 만세토록 태평하게 한 공적”을 읊었다.<sup>45)</sup>

이밖에 조정의 소식이나 새로 관직을 하사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시의 주제가 되었다. 1382년(우왕 8)에 있었던 남경(南京) 천도 때에는 이색과 한수 역시 우왕을 호종하여 남경으로 가 있었다.<sup>46)</sup> 『목은시고』에 남경 천도시에 지었던 수십 편의 시가 남아있고,<sup>47)</sup> 『유항

44) 『고려사』 권134, 우왕 6년 5월.

45) 『척약재집』下, 「敬步韓山高韻. 拜呈都元帥凱旋之次」; 『양촌집』 권3, 「次韻李相國引月凱還 賀詩二首 其一爲公之子二郎而作 二郎亦名將也 引月之役 二郎從相國倉卒之際 不離公側 摧陷之功爲多云」.

46) 1382년(우왕 8) 9월의 남경 천도는 빈번한 왜구 침략의 와중에 풍수지리적인 요건을 이유로 행해졌지만, 약 5개월 후에 송경으로 환도하였다. (『고려사』 권134, 우왕 8년 8월·8년 9월·9년 2월).

47) [목33-43]부터 [목33-91]까지 남경으로 떠나는 여정, 남경에서의 생활, 다시 송경으로 돌아오는 여정까지 기록되어 있다.

시집』에도 2편이 있다[유140, 141]. 이색은 “웅장한 새 수도”[목33-51]에서 다섯 달 간 생활하면서 판삼사사(判三司事)[목33-116]까지 맡게 되었지만, “도당에서 맞장구만 치게 되는” 관직 활동이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목33-118]. 그리고 한수는 잠시 남경에 머물다가 먼저 송경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서 “과연 지덕(地德)이 국운[國祚]를 연장해 줄는지” 의문을 표했다[유141].

동료나 문생이 승진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언제나 반가운 것이었다. 한수는 문생 강회백(姜淮伯)이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 “우리 임금임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빛나게 보좌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 하였다.[유120] 특히, 이색에게 기뻐던 일은 한수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오랫동안 실직을 갖지 못하다가 1383년(우왕 9) 7~8월 무렵 관후덕부사가 되었을 때였던 듯하다. 이색은 “기쁜 마음에 하례하려고 달려가다가 시를 지었는데”[목34-40], “지위도 높아 성재(省宰)와 나란히 하는 자리요, 작급도 높아 봉군의 녹봉을 받는 품계”라고 서술하면서, 앞으로 조정에서도 함께 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내심 “나만 혼자 뛰어올라 면목이 없었다는” 그간의 미안함을 시문으로 전하기도 했다.

#### 4. 노년의 질병, 그리고 한수의 죽음

이색은 줄곧 건강이 좋지는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시는 매우 많아서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시 짓기에 공백이 생기는 이유를 병 때문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질병의 종류는 다양했고, 징후에 따른 치료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허리가 아프면 기와 조각으로 문질렀고, 노안(老顏)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차(茶) 짙으로 씻어냈다.[목7-36] 또한 다년간 약물을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화제(和

劑)를 기록해 두기도 했다.[목18-46] 이미 50세(1377, 우왕 3)가 되기 전부터 “병든 몸이 고통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그 원인과 시기를 젊은 시절의 “객지 생활”로 인해 43세 무렵에 발병한 것으로 파악했다. “약물에 연연하는” 수년간의 병석은 자기 연민과 슬픔으로 이어지곤 했다. 병을 앓은 뒤에는 “문장도 씹쓸하고 뺏겼다.”[목8-66] 그저 약물과 약술로 버티며 가끔 찾아오는 친구와 문생이 반갑고 기쁠 따름이었다.

특히, 50세가 된 이색의 시문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sup>48)</sup> 이색은 “지천명(知天命)이 되기까지 보아온 것이 많아 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태연자약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자부했지만 [목7-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해가 또 바뀌게 되자 과거 27살에 지었던 시[목3-56]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다짐했던 소신들이 51세가 되도록 이루지 못하여 탄식이 절로 난다는 내용을 읊기도 했다. 그 옛날 전녹생(田祿生)과 “술에 취해 서로 손을 이끌고 뱃전을 치며 노래할 때에는 절벽이 찢긴 듯”한 활력을 자부했지만 지천명을 넘기게 되면서 이색은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순간에 불과한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 시를 지어 마음을 달랠 뿐이었다.[목7-30]

한수 역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나이만 먹어가는 자신에 대해 “탄식 [유22]”하기도 했고, “이제 50살이 다 되어 가니, 늘 이웃집 첫닭 울음소리를 듣는다.”[유130]며 나이 드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다. 그래도 이색에 비해 한수는 질병에 대한 하소연이 별로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1384년(우왕 10) 2월 28일에 한수가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목은시교』에서 이 무렵에 지은 시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색은 한수의 죽음과 관련한 시를 남기지 않았다. 이즈음에는 이색의 시 짓는 빈도도 급격

48) 이색이 50세에 지은 시문이 담긴 『목은시교』 권6(21, 63, 64, 69, 76, 88, 103, 105, 106, 109 등)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걱정과 꾸념이 서술된 시문이 매우 많다. 이 무렵 마침 겨울 추위가 다가와서 더욱 병이 낫지 않았다.

히 줄어들고 있었다. 한수가 사망한 지 8년 후, 이색은 그의 묘지명을 지었다.<sup>49)</sup> 묘지명이라는 형식상 그 내용은 망자의 가족과 이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 한수와의 첫 만남 및 여러 인연이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목소리와 용모가 언제나 나의 마음속과 눈앞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어느 날인 듯 잊겠는가.”라고 언급하며 한수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였다.

## 맺음말

이 글은 고려 우왕대 이색과 한수가 주고받은 시를 통해 두 사람의 교유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시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역사적 관점으로 풀어가려 했다. 『목은시고』의 4,262편의 시, 『유항시집』의 147편의 시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차운한 것, 차운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시를 중심으로 그들의 교유관계를 살펴보았다.

시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10대 무렵부터 한수가 세상을 떠나는 때까지 거의 40년 간 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단, 『목은시고』와 『유항시집』에 수록된 시를 교차 검토하게 되면, 그 시기는 대체로 1375년(우왕 1)~1384년(우왕 10)에 한정된다. 우왕대에는 그들이 대체로 정계 일선에서 벗어나 있던 만큼,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개입되지 않았다. 더욱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공민왕대처럼 패기 있게 성균관 중영을 주도하고, 신돈의 개혁에 반대하던 혈기왕성함도 사라져 있었다. 몸은 매일 쭈시고 아팠

49) 『유항시집』, 韓文敬公墓誌銘.

으며, 나이만 들어가던 세월은 야속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시를 통해 문학적 감성을 나누며 서로를 위안했다. 고려 말 사장(辭章)이 매우 중요했던 만큼, 그들 사이의 ‘시 짓기’는 교유관계의 핵심이자 일상 그 자체였다. 상대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되기도 했고, 삶의 고민과 즐거움이 담긴 일기장이 되기도 했으며, 누각에 올라 달을 보며 짓는 감상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색이 시를 지으면 한수가 찬화하기도 했다. 가끔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단 순히 운자를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았고, 시적 공감대를 그들의 교유관계 속에서 확산시켜 나갔다.

그들의 교유관계에서는 신홍유신의 특질도 엿보였다. 과거를 통한 인연은 좌주, 문생, 방백, 동년 등으로 연결되었고, 그들은 잦은 만남을 통해 교유를 돈독히 하였다. 이색과 한수의 가문 역시 좌주, 문생, 방백 등으로 삼대가 얽혀 있었다. 거기에 혈연, 혼맥, 학연까지 얽히면서 인간관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고려사』, 족보 등의 사료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집 속 시문에서는 그러한 관계의 실상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누가 주도하여 몇 명이 참여한 모임인지, 만나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다시 모임을 가졌는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등 만남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시문은 사람의 감정적인 측면이 듬뿍 담겨 있는 일종의 문학 작품이지만, 다른 사람이 차운한 시문 및 관찬 사료까지 관련시켜 분석하면 시대적인 과제와 고민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국가적 위기였던 왜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한수의 경우 유배 시절에 왜구 침략을 경험한 것이 자극이 되었다. 그는 마침 고려에 와 있던 일본 승려에게 왜구를 자제시킬 방안을 찾아주기를 당부하였고, 경상도 안렴사에서 왜구 상황을 묻기도 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왜구를 물리쳤던 전과를 올

렸던 최영, 이성계를 위해 지은 시문도 주목되었다. 이색, 한수를 비롯한 당대의 유학자들이 모두 승리를 축하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고려 종묘사직의 안정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목은시고』, 『유항시집』에는 매우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시’라는 문학작품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못했다. 또한 차운시를 통해 교유관계의 방식을 파악하는 것 역시 이 글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 차운이라는 형식은 그때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전해 주는 단서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사’라는 이름의 사료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고려사』 등의 역사 텍스트에서는 개인의 감정 기복이나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시문의 작시 연대가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색의 『목은시고』, 한수의 『유항시집』이 갖는 사료적 가치를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牧隱詩藁』, 『柳巷詩集』, 『遁村雜詠』, 『圃隱集』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史料(<http://db.history.go.kr/KOREA>)  
국역원전 高麗史(<http://www.koreaa2z.com>)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http://db.itkc.or.kr))

### 2. 논저

高惠玲, 1996,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사승(師承)과 교유관계(交游關係)」,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일조각  
목은연구회, 1996,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일조각.  
申千湜, 1998 『牧隱 李穡의 學問과 學脈』, 일조각  
이익주, 1998, 「고려말 신흥유신의 성장과 조선 건국」, 『역사와 현실』 29  
許興植, 1998, 「李穡의 18人 結契로 본 高麗 靑少年의 集團行態」 『정신문화 연구』 21-1  
임정기·이상현 역, 2000~2003, 『국역 목은집』 1~11, 민족문화추진회  
여운필·성범준·최재남 역, 2000~2007, 『역주 목은시고』 1~12, 월인  
강문식, 2001, 「權近의 生涯와 交遊人物」, 『韓國學報』 102  
朴敬伸, 2001, 「『유향집(柳巷集)』 이본고」, 『울산어문논집』 15  
성범중·박경신, 2004, 『한수(韓脩)와 그의 한시(漢詩)』, 국학자료원  
呂運弼, 2004, 『李穡의 詩文學 研究』, 월인  
이익주, 2005, 「『牧隱詩藁』를 통해 본 고려 말 李穡의 일상 : 1379년(우왕 5)의 사례」, 『한국사학보』 32  
김인호, 2006, 「이색의 자아의식과 심리적 갈등: 우왕 5년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2

고려 우왕대 이색과 한수의 교유와 시(詩)

- 呂運弼, 2006, 「牧隱詩의 多樣한 志向과 面貌」, 『진단학보』 102
- 남동신, 2006, 「목은 이색과 불교 승려의 시문(詩文) 교유」, 『역사와 현실』 62
- 채웅석, 2006, 「목은시고(牧隱詩藁)를 통해서 본 이색의 인간관계망 - 우왕 3년(1377)~우왕 9년(1383)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2
- 김보경, 2007, 「牧隱 李穡의 벼들골살이와 시」, 『동양고전연구』 27
- 안영훈, 2007, 「14세기말 사대부 교유시(交遊詩)의 한 양상 : 이색(李穡) · 정추(鄭樞) · 한수(韓脩)의 교유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7
- 이익주, 2008, 「고려 우왕대 이색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68
- 강민호, 2012,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72
- 권순형, 2013, 「『목은시고』를 통해 본 고려 말 정신택주의 가정생활」, 『여성과 역사』 19
- 김인호, 2013, 「서평: 역사적 인물로 본 이색(李穡), 지식인과 정치가 사이에서 -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일조각, 2013)-」, 『역사와 현실』 89
- 이익주, 2013,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 Abstract

### Friendship and Poetry between Lee Saek and Han Soo in Late Goryeo - Focusing on the Poems Imitating Rhyming Characters from *Mokeun-sigo* and *Yuhang-sijib* -

Kim Yun-joo

This article aims at figuring out friendship between Lee Saek and Han Soo in King Woo's time in Goryeo Dynasty through the poems shared by them, and further, interpreting various forms of lives explained in the poems in historical perspectives. Among 4,262 poems from *Mokeun-sigo*(Lee Saek's poetical works) and 147 poems from *Yuhang-sijib*(Han Soo's poetical works), respectively, their narratives take quite large part in those poems. The article reviews their friendship focusing on the poems imitating rhyming characters from each other's works and those containing each other's narratives even though they did not imitate each other's rhyming characters.

The poems had been their communicative instruments for almost 40 years from their teenage years when they met each other first time to Han Soo's death. However, when cross-checking the poems from their own works, respectively, the period is generally limited between 1375(King Woo's first year) and 1384(King Woo's 10th year). In King Woo's time, as they were almost retired from politics, the political interests scarcely interfered in their relations. Moreover, in their aging times, they did not lead to rebuild

Seongkyunkwan and oppose Shin Don's reform vigorously unlike King Gongmin's time. Their bodies were in pain and sick, and the time when they aged was too confusing.

However, they shared literature emotions through poems and comforted each other. In the end of Goryeo Dynasty, poem literature was very important, and 'writing poems' between them was the center of their friendship and their own daily lives. The poems were letters inquiring after each other, diaries containing agonies and joys in their lives, and records of impression after going up to a tower and watching Moon. And when Lee Saek wrote a poem, Han Soo gave a reading of it. Sometimes, others imitated rhyming characters and wrote poems. The imitation of rhyming characters was not limited in a method of writing poems but the poetic sharing spread in their friendship.

In their friendship, characteristics of neo-Confucianists. The networks through the state examination were connected with proctors, the persons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sons of proctors, and the group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together, and they strengthened their friendship through frequent meetings. The houses of both Lee Saek and Han Soo were intertwined in three generations through proctors, the persons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nd the group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together, etc. These facts can be confirmed from historical sources such as the History of Goryeo Dynasty(*Goryeosa*) and the pedigrees but the poems of their literature works shows the actual contents of these relations more intensively, because they contains specific contents of the scenes of their meetings such as who led the meetings, how many people participated in, where they met and what they did, when they met again, and if it was a single meeting only, etc.

The poems are a kind of literature containing emotional aspects of people but when analyzing other people's poems by imitating rhyming characters

and the official historical sources, they can show the requests and agonies at that time.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views their concerns in Japanese invasion, which was a national crisis at that time, and in case of Han Soo, his experience of Japanese invasion inspired it. He asked to the Japanese monks who visit in Goryeo at that time finding how to control the Japanese and explored the situations of Japanese invaders. Also, in that situation, the poems dedicated for Choi Young and Lee Seong-gye who won the Japanese invaders attracted attentions. The Confucianists at that time including Lee Saek and Han Soo celebrated their victory and among them, the poems contains their wish of stabilization of Goryeo Dynasty.

In addition to them, Both *Mokeun-sigo* and *Yuhang-sijib* introduce very diverse narratives of lives. However, the historical facts included in the literature of ‘poetry’ have not been considered as significant ones. In addition, figuring out friendship through the poems imitating rhyming characters was also attempted in this study first time. We should ask ourselves if we have been too dependent on the historical sources in the name of the ‘official histories’. However, the historical texts such as the official history of Goryeo(*Goryeosa*) do not include individual emotional changes and mood swings. From this, we need to reconsider the historical values of *Mokeun-sigo* by Lee Saek and *Yuhang-sijib* by Han soo, which the times of writing poems were almost clearly revealed.

Keywords : Lee Saek, Han soo, Kwon Keun, Jeong Mong-joo, Jeong Chu, Neo-Confucianist, Poems Imitating Rhyming Characters, Jwaju(proctors), Munsaeng(the group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together), Bangbaek(sons of proctors), waegu(japanese pirates), Beodlgol